



제17회 일본산업의과대학 산업간호국제심포지움을 다녀와서(I)



순천향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전 경 자

지난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일본의 키타큐슈에서 제17회 일본산업의과대학 국제심포지움이 개최되었다.

‘산업간호의 전문성 (Occupational Health Nurse Expertise)’을 주제로 한 이번 심포지움은 지금까지와 달리 일본과 세계 여러 나라

의 산업간호학자와 실무자를 위하여 특별히 기획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심포지움의 계획에서 실행에 이르는 전 과정을 산업의과대학내 간호학과 교수진들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였고 참석자들도 대다수가 전국에서 온 산업간호사와 간호학 교수 및 간호학생, 그리고 외국의 산업간호사 및 교수들이었다.

심포지움은 19일 저녁에 참석자들을 위한 환영파티로 시작되었다. 20일 아침에 개최선언에 이어진 본 행사는 크게 특별강연, 산업보건에서의 Partnership, 산업간호사의 교육/훈련,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중재, 산업간호의 전산화, 산업간호의 비용/편익효과 등의 다섯분야로 구성되었다.

특별강연은 미국산업간호협회장이면서 North Carolina대학의 교수인 Bonnie Rogers의 ‘Expertise in Occupational Health Nursing’ 이었다. 미국의 산업간호 발전을 토대로 산업간호가 갖추어야 할 전문성의 요소를 중심으로 전개된 Rogers교수의 강의는 대단한 자신감과 자부심에 차 있었다.

두번째 특별강연은 NIOSH Fingerhut박사의 ‘Partnership i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이었고,

세번째로 일본의 Maeda교수의 일본산업간호의 역사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오후 세션에는 일본 노동과학연구소 Gogi박사의 ‘Health Work Team in Participatory Workplace Improvement’, ILO의 Coppee박사의 ‘The Role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in Providing Occupational Health Care in the Workplace’, 일본 노동부의 관료인 Mitsuhashi선생의 ‘산업안전 및 보건관련 법의 개정과 산업보건인력에 대한 역할기대’라는 주제의 강연이 있었다.

프로그램 구성상 외국의 초청연자와 일본인 발표자가 번갈아 가면서 발표를 하였고 학계, 정부, 연구소, 국제노동기구 등 관련분야를 모두 포함시켰다는 점이 돋보였다.

21일에는 미국 NIOSH의 Kuchinski박사의 ‘Education and Training of Occupational Health Nurses in US’, 일본 산업의과대학 Kato교수의 ‘일본 산업간호사의 보수교육’, 미국 Johns Hopkins 대학 Agnew교수의 ‘Interventions in The Workplace for Aging Workers’, 일본 와세다대학 Saito교수의 ‘직업적응력 개발과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중재’, 일본 건강보험재단의 Iijima선생의 ‘HIV 감염에 대한 예방대책’을 주제로 발표가 있었다.

22일에는 산업간호의 전산화를 주제로 하여 미국 Health Works의 Dalton 박사가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Information Management for Occupational Health Nurses’를 발표하였고, 산업간호서비스의 비용/편익효과를 주제로 스웨덴 Jorgensen선생이 ‘Occupational Health Nursing-Value for Money’를 발표하였다.

각 세션별로 주제강연이 끝난 후에는 관련 논문의

발표가 이어졌다. 일본 국내에서 간호사, 또는 의사들이 대거 참여하였고, 외국인으로는 프랑스 산업간호협회장, 호주 WorkCover Authority의 간호사, 대만 국립대학 교수 등이 있었고, 한국에서는 필자를 포함하여 산업안전공단의 조동란교수, 가톨릭대학교의 유경혜교수, 고려대학교 환경의학연구소 산업보건센터 변성원간호사와 서시영간호사, LG화학의 백남달간호사가 참여하였다.

필자는 'Transition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Education in Korea' 를, 조동란교수는 'Cost-Benefit Analysis for Occupational Health Nursing Services in Korea' 를, 유경혜교수는 'Nursing Diagnosis on Group Occupational Health Services as Seen by Homeodynamic Self-Care Field Conceptual Framework' 을 각각 발표하였다. 또한, 참석자 중에는 싱가포르 산업간호학회 전임회장과 부회장을 만날 수 있었고, 포스터 연제에 참여한 러시아 간호사도 있어 나름대로 국제심포지움의 면모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심포지움 참가를 통해서 얻은 여러 가지 경험중에서 가장 의의가 큰 것은 아마도 일본의 산업간호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일본의 산업간호는 1890년에 가네보방직회사가 공장안에 병원을 설립했던 것을 그 시발점으로 삼고 있었다.

그 후 1923년에 공장법이 개정되어 간호사들이 공장을 방문하는 활동이 시작되었고, 1951년에 결핵예방법에 따라 보건간호사를 고용하는 회사들이 증가하였다고 한다. 1954년에 일본간호협회 산하 보건간호사회에 산업간호위원회가 조직되었고, 1978년 일본산업보건협회에서 산업간호학술활동이 시작되었으며 1982년에 산업의과대학 안에 3년제 간호학과 졸업자를 위한 1년과정의 산업간호프로그램이 개설되었다.

1989년 들어 교육부는 보건간호사교육에 30시간의 산업간호관련 교과를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였고 1996에는 처음으로 일본산업보건협회 산하 산업간호분과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주관하였다. 이러한 발전과정을 통해 볼 때, 일본의 산업간호가 제도적으

로나 산업간호조직의 주체적 측면에서 한국에 비해 그다지 앞서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발표되는 연제의 내용을 보면, 건강진단 후 산업간호사가 상담을 제공하는 상담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기 시작하는 수준이었고, 산업간호사의 역할에 대한 법적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현실이었다. 그러나, 후꾸오까현 간호협회 산업간호소위원회에서 1995년과 1996년 연이어 산업간호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었음은 상당히 조직적인 활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산업간호실태조사는 업종, 종업원수, 산업간호사의 취업상황, 직위, 처우, 노동안전위생체계, 간호사의 업무, 간호사에 대한 이해도 및 신뢰도 등을 포함하고 있어 이러한 조사는 우리 나라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다.

또한, 산업의과대학 간호학과에서는 산업간호학 총론, 산업간호학 각론, 산업정신보건학, 산업간호실습을 교육과정 중에 포함하는 것으로 특성화를 시켜나가고 있어 앞으로의 발전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면들은 특히 우리나라의 산업보건의 일본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는 점들을 고려해볼 때 앞으로 한일간 산업간호분야의 교류가 시작되어야 하겠다는 필요성을 절감하게 하였다. 한일 두 나라의 산업간호 교육·실무·연구 분야에 걸쳐 서로의 상황을 파악하고 경험을 나누며 발전에 협력해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앞으로 산업간호협회와 산업간호학회가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었다.

한편으로 우리나라의 산업간호계가 일본을 이꿀 어줄 수도 있겠다는 자부심을 느끼면서도 국가의 경제적 역량에 힘입어 일개 대학에서 국제수준의 학술 행사를 전혀 손색없이 훌륭하게 치뤄낼 수 있는 모습에 부러움을 참을 수 없었던 점 또한 사실이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국제적인 학술행사나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개인의 발전뿐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간호의 발전에 대한 전망을 넓히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기대를 더욱 크게 가질 수 있게 되었다.